

# “살인은 참회할 수 없는 죄”

##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2>

그 때 부처님께서 정반왕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왕은 설법을 다 듣고 난 뒤에 앞으로 나와 부처님 발에 절하고 부처님 주위를 빙 돌고는 물러갔다. 부처님께서 이 인연으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모든 우바새들을 위하여, 법계에 있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참회할 수 있는 것과 참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느니라.”

비구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하옵습니다.”

비구의 율의는 대승(大僧)의 법이라서 세속인이 듣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계는 우바새 즉, 재가자가 배워야 할 계율인데 무엇 때문에 정반왕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왕이 물러나기를 기다렸다가 이 인연을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래께서 칠중(비구, 비구녀,

식차마나니, 사미, 사미니, 우바새, 우바이)의 계법을 모두 비구 승가를 향하여 결제(結制)하신 것은, 비구가 칠중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이며, 승보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 열

첫째 죽이지 말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살계(殺戒)를 범하는 것, 즉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을 보내 살게 하는 것이

다. 스스로 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직접 빼앗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붙잡아 묶어 두고 목숨을 빼앗아라’고 직접 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보내 살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무개를 찾아가 모르는가. 아무개를 찾아가 그 사람을 붙잡아 묶어 두고 목숨을 빼앗아라.’ 이렇게 시키는 것으로 목숨

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바새가 살계를 범하게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는 다섯 가지 인연으로 해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성립된다. 첫째는 사람일 경우이다. 즉 죽임 당하는 이가 사람일 때다. 둘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人想), 즉 마음 속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경우이다. 셋째는 죽인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넷째는 죽이는 방법(방법)을 쓰는 것이고, 다섯째는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이다. 살계가 다섯 가지 인연으로 해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법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모든 계에 결죄(結罪)를 할 때는 모두 이러한 조건의 연을 갖

### 他人 시켜 목숨 빼앗아도 살계 해당

### 참회할 수 없는 죄 범하면 계체 잃어

### 오계상경-6

도하신 뒤에 모든 니대중(尼大衆)은 비구로부터 계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비구에게나 식차마나니계, 사미니계도 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하물며 오계가 비구에게 소속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비구 승가를 향하여 오계를 말씀하신 것은 우바새와 우바이들이 비구에게서 계법을 배우도록 함인 것이다.

정철분

## ‘법구경’ 러 국민의 불교 입문서

### 불

세비키 혁명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러시아 불교학자들은 1957년 유리 레르흐(Yu.N.Roerich·1902~1960)의 귀국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당시 구 소련은 세계적 석학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그를 과학인 산하 중앙연구소인 도종교·철학·역사학의 연구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극진히 대우했다. 레르흐가 구 소련에서 활동하던 기간은 3년에 불과하지만, 그 동안 그에게 교육받았던 후학들은 훗날 러시아 불교계의 중추적인 그룹이 되었다.

이 그를 가운데 탁월한 불교학자로 꼽히는 인물은 토포로프(V.N.Toporov·현 러시아 국립인문대학) 교수다. 그는 1960년에 레르흐의 제안으로 숙간된 ‘불교전서 시리즈’의 첫 권인 노어본(露語本) ‘법구경’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많은 소련인에게 ‘불교 입문서’ 구실을 특별히 해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용수의 중판 철학을 연구했던 쿠타소파(I.M.Kutasova), <경집>의 번역과 주석에 몰두했던 루치나(V.P.Luchina), <본생경>의 대중화를 위해 노어본 작업에 매달린 스트킨(A.Ya.Strkin) 등이 있었다.

### 세계의 불교학 <12> 러시아 ③

1960~80년대 스탈린식 탄압과 통제 완화된 뒤, 역경·교리 등의 분야에서의 번역·연구·출판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를 종교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치나는 <소련 백과사전>이라는 인문분야 사전 편찬을 통해, 불교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 백과사전에는 ‘불교’ ‘용수’ ‘선’ ‘나선비구경’ ‘공’ 등 불교의 대표적인 인물과 교리에 대한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소련 백과사전>이 구 소련의 일선교육 현장에서 필수적 참고서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루치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교학자들의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경전을 연구의 주 텍스트로 삼는 일단의 학자들이 나타났다. 196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이들 언어학자 그룹은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하였던 구조주의와 형식주의 등의 연구 방법론

을 토대로 불설(佛說)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구조주의 방법론을 즐겨 사용하던 언어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현재 런던대학 부설 ‘동양·아프리카학 연구소(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강의하고 있는 파이티고르스키(A.M.Pyatigorskii) 교수다. 그는

### 1960~80 교리 등 경전연구 주류 학자들 구조주의 방법 즐겨 사용

‘불교는 경계(인식의 대상)보다 다르고 있다’는 데 착안해 불교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불교를 서구적 의미에서의 철학이라기 보다 선정과 체험 등이 필요한 사유 체계로 파악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논리학에 바탕을 둔 서구적 사고와 선정에 근거하여 ‘해탈의 방편’으로 존재하는 불교적 사유의 근본적 차이점을 정확히 알리



○수행장소로 쓰일 건물들을 짓고 있는 러시아 불자들.

고, 또 구 소련의 불교학계뿐 아니라 인접 학계에서 불설의 참뜻을 자리잡을 수 있게 한 인물이 바로 파이티고르스키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파이티고르스키의 제자 레나르트 미알(Linnart Myall·현 타르투 국립대학) 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한된 텍스트의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텍스트를 무제한 생산할 수 있는 사유”라고 정의해,

추웠을 때 비로소 계를 범한 것이 되는데, 만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곧 상품(上品)인 ‘참회할 수 없는 죄’가 성립되고, 그 가운데 한두 가지 빠지게 되면 중품, 하품인 ‘참회할 수 있는 죄(可悔罪)’가 된다.

본문에서 ‘자신이 직접 하거나(自作),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教人), 다른 사람을 보내어 시킨다(遣使)’고 하는 것은 모두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떤 방편을 일으킨 것이므로 상대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원가(怨家)가 눈앞에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것을 ‘교살’이라 하고, 원가가 다른 장소에 있고 사람을 보내 죽이는 것을 ‘견사’라 한다.

만약 ‘갑’이 ‘을’에게 시켜 ‘병’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병’이 죽으면 ‘갑’과 ‘을’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얻는다. 참회할 수 없는 죄는 아주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머리를 자르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다.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면 계체를 잃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맨 처음 우바새계를 받을 때, 삼귀의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일을 마치면 곧 무작계체(無作戒體)를 얻게 된다. 다음 주에 무작계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해인총림 윤원장>

## “악업 더이상 짓지 마라” 고통은 자비의 메시지

### 사람들은 흔히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또는 그 고난을 부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주의 질서인 인과법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생로병사와 생주이멸을 거듭하는 변화 속에 있지만 거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질서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인 것이지요.

부처님 재세시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은 다같이 사람의 목숨을 받았으면서도 무슨 인연으로 덕이 있는 자가 있고 덕이 없는 자도 있으며, 단명한 자와 장수하는 자를 비롯해 빈부귀천의 온갖 차별을 보이시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본성은 하나지만 저들이 지은 바 각각의 행한 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업보 때문에 온갖 차별이 벌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온갖 중생의 본성품은 차별이 없지만, 각자의 지은 바 업으로 말미암아 온갖 차별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시련과 고난은 반드시 그럴만한 과거의 업연이 있었기에 현재의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리달마 대사는 <이심사행론>에서 수행자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현생에 죄를 안 짓고 바른 행을 하는 데도 지금 현재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은, 과거 무수한 겁에 걸쳐 사람들을 중용하고 살인했으며 상처 입히는 온갖 악업을 지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그때는 이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며 어느 누구

도 원망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괴로움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업연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면 마침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달마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도 “만일 고의로 악업을 지으면 그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고 후세에 받고 후세에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시련은 과거 업연으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불자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둘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법염처경>에서 과보가 결정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악업을 짓고도 뉘우치지 않고 뉘우치기 때문”이다. 참회는 몸과 마음으로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참회를 하고 육바라밀을 닦으면 무거운 업은 가볍게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했을 때, 불자들은 무엇보다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고난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우주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분명한 것이니, 현재의 시련과 고난은 지난 과거 혹은 과거생에 나에게 잘못 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통은 그러한 악업을 다시는 짓지 말라고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자비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은 업연이 다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니,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과거 업연으로 인한 과보임을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참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의 시련을 받아들인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눈녹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jikim@buddhafia.com)

### 법회중계

#### 무량선원

(2000년 3월 31일)



재연스님

(광주 무량선원 주지)

### 고난이 닥쳐왔을 땐 남을 원망하지 말고 참회하고 감사해야

##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해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로 제작, 판매합니다.

해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덕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금주 : 최중웅  
금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 제2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 2nd Academic Award Of Jingak Order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관련 연구 특히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진각논문대상’을 매년 개최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 주 제 : 불교일반 (불교관련 제반분야 포함) 밀교일반 (밀교관련 제반분야·진각종 교학 포함)
-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 전형방법 : 인적사항 1부 및 논문계획서 1부
- ▶ 전형일정 : 접수마감 - 2000년 5월 6일(토)  
당선작 발표 - 5월18일  
당선논문발표회 - 10월 13일(금)
- ▶ 당선작 및 상금 : 불교분야 2~3편, 밀교분야 2~3편, 상금 각 200만원
- ▶ 접수처 : 136-132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 22,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합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e-mail : jingak@chollian.net  
전화 (02) 913-0133, 0134 / 전송 (02) 913-0135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한불교진각종